

시대의 어른, 곳곳한 그 기상이 그림다



義人 홍남순

타계 10주기 되살아나는 광주정신

왜 다시 홍남순인가

‘시대의 의인’이자 1세대 민주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홍남순 변호사가 타계한 지 14일로 10주기를 맞는다.

1960년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위원회 전남부위원장, 1969년 3선개헌 반대 범국 민투쟁위원회 전남위원장, 5·18 수습대책위원, 1985년 5·18광주민주혁명기념사업 및 위령탑건립추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 민주화운동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1983년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합석헌·문익환 등과 함께 5인 긴급선언을 발표하고, 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찾아가 용기를 북돋아주며 목숨을 건 변론을 펼쳤던 홍 변호사의 대인다운 품모 또한 세인들이 뇌리에서 잊힌 지 오래다.

추앙하고 뜻을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다는 말이 회자하는 요즘 광주일보에는 호남의 어른을 넘어 시대의 어른이었던 홍 변호사의 삶과 그가 지키려 했던 가치를 3차례에 걸쳐 되짚어 본다. ▶관련기사 3면

1912년 6월 화순서 태어나 광주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고 2004년 10월 92세를 일기로 숨을 거둘 때까지 홍남순 변호사의 삶을 관통하는 한 단어는 ‘시대의 의인’으로 압축된다.

광주시 동구 공동 15번지 자택 앞에서 만난 한 광주시민은 홍 변호사를 가리켜 “온 산천이 우러러봤던 인물”로



1969년 민주구국선언을 마치고 가두 시위 도중 길을 막아선 경찰에게 항의하는 홍남순 변호사. <5·18기념재단 제공>

인권변호사로, 민주화 투사로... 민주인권운동 평생 헌신

69세 고령 불구 5·18항쟁 ‘죽음의 행진’ 진상규명 앞장

평가했고, 장준하 선생은 ‘함께 무등산을 오르며 시국을 논하고 싶은 동지’로 여겼다.

서울 퍼런 박정의 독재시절 ‘대일 굴욕외교 반대 투쟁’을 기점으로 5·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시내 진입을 막기 위한 죽음의 행진, 신군부의 폭압 통치에 맞선 5인의 긴급 민주선언, 5·18광주민주항쟁 위령탑 건립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의 운동 현장에는 언제나 홍 변호사가 자리를 지켰다.

1948년 해방조국 조선변호사 시험에 36세의 나이로 합격,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홍 변호사는 1965년 3월 유우우 국회의원이 국가원수 모독죄로 범정에 섰을 때부터 인권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같은 해 4월 대일 굴욕외교 반대와 관련된 사건으로 구속된 전남대 총학생회장 정동년 변론, 1973년 합성지 사건 변론, 1976년 3·1구국선언 명동 사건, 1978년 송기숙 등 전남대 교수가 발표한 ‘교육지표’ 사건 등 시국사건 범정에는 그가 빠지지 않았다.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주장한 명동 사건으로 진주 교도소에 수감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수시로 찾아가 면회하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변론을 펼친 것도 홍 변호사였다.

박석무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남산(안기부)에 끌려가도, 5·18 당시 영장에 수감돼도 항상 기백은 꺾이지 않았고 도대체가 불의와 타협을 할 줄 모르는” 분이였으며 “전두환이 고 박정희고 어떤 독재자에게도 두려움이 없던” 인물이었다.

일생을 시국사건 변론과 민주화 투쟁 활동에 바친 그는 축재에는 관심이 없는 청빈한 삶을 살아왔다. 홍 변호사 사무실이자 자택이었던 공동 15번지 건물은 비가 새기 일췌였고, 그가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온 식물이 끼니 걱정을 해야 했다.

5·18 민주항쟁도 홍 변호사를 제외하고서는 논하기 힘들다. 1980년 당시 69세의 나이로 계엄군의 광주 시내 진입을 막으려고 조비오 신부 등 수습위원들과 합



홍남순 변호사가 1968년 박정희 독재 정권 당시 치러졌던 국회의원 선거(6·8부정선거)의 무효화를 추구하고 있다.

께 했던 ‘죽음의 행진’부터 5·18 진상규명 및 위령탑 건립까지 피해를 최소화하고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 헌신했다.

송선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영원한 재야인사로 대인이었던 홍남순 변호사는 이 땅의 내로라하는 민주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일생을 민주인권 회복 운동에 앞장 서신 분”이라며 “홍 변호사 타계 10주기를 맞아 선생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 시대의 어른은 무엇이며,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혈세 먹는 전망대 ‘우후죽순’ 비어가는 전남 시·군 곳간

영광 108억 칠산타워 개장

22개 시·군 31곳 운영

관리·운영 매년 적자 눈덩이

전남도내 곳곳에 전망대가 들어서면서 이를 운영하는 시·군의 재정 지원도 급증하고 있다. 30곳이 넘는 전망대 가운데 상당수가 무료나 저렴한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건립비나 운영비에 주민 혈세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절한 입장료 징수, 부대수익 창출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영광 칠산타워가 개장하면서 22개 시·군이 운영하는 전망대는 모두 31곳으로 늘었다. 사업비 108억원이 들어간 칠산타워는 높이 111m로 전남도내 타워 가운데 최고높이를 자랑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도군이 녹전전망대·세방낙조전망대·진도타워·회동전망대·도리산전망대 등 5곳으로 가장 많았다. 신안군이 소금밭낙조전망대·자산어보전망대·보물섬전망대 그리고 고흥군이 고흥우주발사전망대·중산일몰전망대·녹동전망대 등 3곳으로 그 뒤를 이었다. 나머지 시·군도 1~2개씩 전망대를 건립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이들 전망대의 대부분은 적자

■ 전남도내 주요 전망대

시설명	사업규모	사업비
정남전망대	지상 10층(46m)	95억원
땅골전망대	지상 9층(39.5m)	35억원
완도타워	지상 2층(76m)	70억원
진도타워	지상 5층(31m)	130억원
영광 칠산타워	지상 3층(111m)	108억원

신세다. 국비 7억원, 군비 59억원 등 130억원이 투입된 진도타워(2015년)의 경우 지난해 1억38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집행해 5900여 만원의 적자를 봤으며, 34억 4000만원짜리 땅골 전망대(2002년) 역시 지난해 운영비로 7억7000여만원을 썼지만 입장 수익은 2억8000여 만원에 불과, 5억원에 가까운 군비를 지원했다. 군비 94억8000여만원을 들인 장흥 정남전망대(2011년) 역시 매년 50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비 67억2000만원 등 무려 116억원에 투입된 영광 구룡산전망대는 입장료 없이 매년 7000만원의 운영비를 혈세로 부담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강성휘 도의원(목포1)은 “각 시·군이 한탕주의식으로 건립하고 있는 전망대는 관광객 유치에도 별 도움이 안 되고 결국 관리비 부담만 늘어난다”며 “사전 타당성 검토를 면밀하게 하고 부대수익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형석기자chadol@kwangju.co.kr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출시 2개월만에 단종

13일부터 교환·환불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전세계 판매와 교환을 중단하고 생산 중단을 공식으로 확인했다. 제품 단종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매와 사용금지 결정이 내려진 갤럭시노트7은 오는 13일부터 연말까지 구매처에서 다른 제품과 교환 또는 현금으로 환불된다.

삼성전자는 11일 ‘갤럭시노트7 생산 및 판매 중단 결정’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통해 “최근 갤럭시노트7 소손 발생으로 정밀한 조사와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해 공급량을 조절하였으나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갤럭시노트7의 판매 중단과 함께 생산도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의 리콜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갤럭시노트7의 사용중지를 권고했고,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공식 리콜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의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갤럭시노트7을 판매하지 않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라!

- 일시 : 10월 16일(日) 9:30~
- 장소 : 모교 운동장
- 전화 :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 민 수

광주시, 홍남순 자택 5·18 사적지 지정 검토

인권활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고(故) 홍남순 변호사의 자택이 폐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11일자 1·3면>과 관련 광주시가 이 자택을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마무리된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기존 사적지 이외에 홍 변호사의 자택

등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현장들을 사적지로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올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5·18 기념사업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에 홍 변호사 자택을 사적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용역결과 내용 가운데 사적지 또는 유적지 추가 지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43.

3%가 추가 지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20%가 부정적으로 응답해 2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적지 추가 지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5·18 관련단체(55.1%)와 학계(52.2%)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역결과 사적지 또는 유적지 확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고, 그동안 사적지 추가 지정 대상으로 홍남순 변호사 자택이 주로 거론됨에 따라 사적지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2016 청정완도
가을빛여행

2017 완도국제 해조류박람회
2017. 4. 17(금) ~ 5. 7(월) 24일간

2016. 10. 21(금) ~ 23(일) 3일간
완도해변공원, 완도타워, 완도수목원, 청산도 일원

주최 완도군
주관 **청정완도가을빛여행추진위원회**